

‘미나리’ 한예리 “영화가 저에게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줬죠”



배우 한예리

국내 개봉 앞두고 한국 언론 인터뷰
“상 안줘도 사랑 받은 것만으로 과분”
“직접 부른 주제가 아카데미 예비후보
기분 좋지만 신기하고 쑥스러워”

“각본상이든 감독상이든 작품상이든 감독님께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생한 만큼 감독님께 보람된 일이 생기면 좋겠지만, 상 안 줘도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배우 한예리가 아카데미 기대작인 영화 ‘미나리’ 팀을 대표해 한국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리 아이작 정(정익석) 감독과 스티븐 연은 미국에 살고 있고, 배우 윤여정은 드라마 촬영차 캐나다에 머물고 있다.

다음 달 3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최근 온라인으로 만난 한예리의 차분한 말투에는 영화와 정 감독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다.

그는 “선댄스 영화제에서 처음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영화구나’ 생각했지만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영화 안에 누군가의 유년 시절이나 부모님 이야기처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약역도 없는 데다, 감정을 강요하거나 신뢰 없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하고 답답하고 무뎠던 연출한 것이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싶어요. 모두가 이민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국 관객들에게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계 미국인인 정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영화는 처음 영어로 쓰였다. 한예리가 처음 받은 시나리오엔 영화가 다 이해될 만큼 완벽하게 번역된 상태가 아니었다.

한예리는 “영화에 대해서도 모니카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었고 빨리 감독님을 만나야겠다 싶었다”며 “감독님을 만났을 때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잘 됐으면 좋겠다, 함께 작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화 출연을 결심했다”고 했다. 한예리가 연기한 모니카는 남편 제이컵(스티븐 연), 어



영화 ‘미나리’

린 두 아이와 함께 미국 서부 도시 캘리포니아에서 아칸소 농장으로 이주한다. 비옥한 땅을 일구겠다는 남편을 따라 왔지만, 거친 환경에서 몸까지 약한 아들 데이비드를 키워야 하는 모니카는 불안함을 느낀다.

“모니카는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만, 절대 헤어지자고 얘기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말하는 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에 와 있으니 당신이 붙잡아 달라는 말로 생각했어요. 마지막에도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고, 그 건 제이컵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었겠죠.”

“미나리”는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미국 남부의 뜨거운 여름 날씨 속에, 25화차 만에 찍은 독립영화다.

70대인 윤여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고 했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배우들은 특별한 시간과 경험을 나눠 가진 듯했다.

“주말이나 촬영을 끝낸 저녁이면 같이 밥을 해 먹었어요.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큰 위로가 됐고 내일 할 수 있는 것, 포기해야 할 것,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공유하는 게 행복했어요.”

한예리는 “현장에 감독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도와주러 오셨고,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 그분들이 얼마나 이 영화를, 감독님을 사랑하는지 그 힘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또 “함께 보냈던 시간 때문에 제가 엄청 건강해지고, 이 영화와 작업을 사랑하게 됐다”며 “특별한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많은 공을 감독에게 돌렸다.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있지 않았고, 감독님은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선택하는 똑똑한 분이예요. 다른 걸 포기하더라도 배우들이 편안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셨고, 촬영이 끝날 때마다 보여주는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해냈다’ 하는 따뜻한 달콤한 미소였죠.”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 주요 부문 후보 발표에 앞서 ‘미나리’는 음악상과 주제가상 예비후보에 이름을 먼저 올렸다. 에밀 모세리가 작곡한 주제가 ‘레인 송’은 한예리가 직접 불렀다.

그는 “촬영 중간중간 들려준 에밀의 음악은 너무 아름다웠고, OST가 나오면 좋겠다 생각했다”고 했다.

“어느 날 에밀이 ‘여기가 불러줬으면 좋을 곡이 있다’며 ‘자장기처럼 불러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전부터 음악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영화에 도움이 될만한 일이라면 흔쾌히 다 할 생각이었죠. 주제가상(예비후보)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라 신기하고 기분 좋고 영광스럽지만, 엄청 쑥스럽습니다.” /연합뉴스

학폭 논란 연예인들 방송 일정 취소·보류 줄이어

박혜수·조병규·현진·수진 등

제작 발표회 등 예정 일정 불참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연예계도 쑥대밭이 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연예인들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들 간 진실 공방이 장기화하면서 방송 일정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26일 KBS 2TV 드라마 ‘디어엠’ 첫 방송을 앞둔 주연 배우 박혜수는 학창 시절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법정 공방에 접어들었다.

드라마 편성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고, 다음 날 온라인 제작발표회도 자동으로 취소됐다. KBS 측은 25일 “출연자 관련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유학 시절 친구들에게 학폭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조병규 역시 유재석과 공동 MC를 맡기로 했던 KBS 새 예능 출연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도 소속사를 통해 법적 대응 절차를 밟고 있어서 촬영 일정이 자연스럽게 미뤄졌다.

과거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스트레이키즈 현진은 24일 열린 ‘MBN Y 포럼 2021’ 축하 공연에 불참했다. 27일 방송되는 MBC ‘쇼! 음악중심’ MC도 같은 소속사인 걸그룹 있지의 예지가 대신한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현진의 스케줄에 대해 “현시점에서 스케줄 진행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해 진행을 유보했다. 추후 스케줄 진행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걸그룹 (여자)아이들 멤버들은 지난 23일 네이버 나우 라이브 쇼 ‘소문의 아이들’에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멤버 수진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이후 취소했다.

이보다 앞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가수 진달래는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미스트롯?’에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래퍼 강현은 엠넷 힙합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에서 중도 하차했다.

네이트판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재도 연예인 학폭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방송사들은 학폭 이슈가 사회적으로 번지자 일단 논란이 생기면 출연을 보류하는 분위기가 한동안 출연 일정 차질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남진, ‘소문난 님과 함께’로 예능 MC 데뷔

‘국민 오빠’ 남진이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로 변신한다.

MBN은 “가수 남진이 새 예능 프로그램 ‘소문난 님과 함께’로 첫 예능 MC에 도전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문난 님과 함께’는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숨겨진 수많은 인생 선생님들을 찾아 떠나는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제목은 남진의 인기곡 ‘님과 함께’를 따왔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남진은 서울에선 볼 수 없었던 풍경의 멋, 숨겨진 맛, 그리고 남다른 사연을 가진 님의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만인의 오빠’로 불리는 남진의 첫 MC 데뷔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어떤 ‘님’들을 만나 인생의 희로애락을 들려줄지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방송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N&B
Nim e Bnong Solar Energy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